

# 초급 상 수준을 위한 스토리텔링 중심의 영어 말하기 교수 전략

고미숙\*

<sup>1</sup>서일대학교 비즈니스영어과

## Strategies of Storytelling Based Teaching of English Speaking for Novice High Learners

Mi-Sook Ko\*

<sup>1</sup>Department of Business English, Seo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성인 영어 학습자의 말하기 숙련도 향상을 위한 영어교수법을 제안하고 있다. 패턴 위주의 문장암기나 문법 규칙 중심의 대화식 영어회화 교육 방법을 탈피하여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영어 말하기 교수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다. 스토리텔링 중심의 영어 말하기 교수법의 이론적 타당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말하기의 목적 즉, 자신의 생각을 적절히 설득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의견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풍부한 담화량의 확보가 관건이다. 이를 위하여 이야기 구성요소 중심의 말하기 전략 12가지를 소개하고, 말하기 학습에 적용해 보고 있다. 다음으로, 수사학적 차원에서 설득적인 말하기를 위한 전략을 살펴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적인 말하기를 위한 수사학적 5대 영역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의 말하기와의 관련성을 찾아본다. 끝으로, 교육 현장에서 스토리텔링 중심의 영어 교수법 적용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외국어 학습자로서의 언어 숙련도가 모국어 수준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스토리텔링 기법의 영어 말하기 교수가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에 관한 의문에 학습자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one of English teaching methods to improve English speaking proficiency for adult English learners. Contrary to the traditional English conversation teaching trends such as memorization of specific patterns or grammar-focused practices, the study introduces a storytelling based teaching of English speaking. To theoretically support the storytelling based English speaking teaching, the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the teaching method in three ways. First, the 12 speaking strategies focusing on contents of a story are introduced in the way of securing speech amounts as much as possible. Next, the five rhetoric components by Aristotle are introduced to relate to the storytelling teaching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the goal of speaking, which is to deliver what a speaker want to say more persuasively. Finally,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learner strategy uses, the possibility of storytelling English speaking teaching can be expected regardless of learners' low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Key Words** : English Speaking, Learner Strategy, Rhetoric 5 Components, Story Contents, Storytelling

### 1. 서론

English as a Second Language(ESL)분야에서의 영어 말하기 연구 주제는 대화의 기술에 관련된 연구들이 주

본 논문은 2015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Mi-Sook Ko(Seoil Univ.)

Tel: +82-2-490-7277 email: peacemsko@seoil.ac.kr

Received April 15, 2015

Accepted May 7, 2015

Revised (1st April 30, 2015, 2nd May 6, 2015)

Published May 31, 2015

류를 이룬다[1]. 한국에서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영어 말하기 교육관련 논문의 대부분은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한 연구들이다.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 학습자들이 대화 중 어휘구현에 어려움을 겪으면 자신이

아는 단어로 설명하거나(Circumlocution), 말할 차례 (Turn Taking), 대화 중 어휘에 어려움을 겪을 때 사용되는 비언어적 행동에 관한 상호작용 기술, 답화 표지어, 주제전환 전략, 언어선택에 대한 문법적 특징, 어휘사용, 발화의 유창성이나 발음에 대한 연구 등이 전반적이다 [2].

그러나 한국에서의 현실적인 영어사용의 양상은 외국 인과의 협력적인 의사소통보다는 일반적인 정보전달이나, 이야기 서술, 정보요약 등의 영어말하기가 보다 더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개인의 능동적인 언어구 사능력이 대화의 교환능력보다 사회생활이나 학교에서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영어말하기 교수는 단순히 인사나 정형화된 상황 별 패턴 표현암기 연습, 혹은 문법위주의 두세 문장의 대화식 영어회화 교수로서는 말 하기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대화의 기술과 말하기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영어말하기의 실제적 교수 모형이나 다양한 교재개발에 대한 변화가 촉구된다[3]. 한국에서 영어공교육을 받은 성인 학습자들은 어느 정도 단어나열식의 말하기나, 간단한 어구와 문장구성이 가능한 수준인 초급 상 혹은 중 급 하 정도의 영어말하기 숙련도 소지자일 것으로 추정 한다[4]. 그러나 현재 영어회화수업의 관행적인 학습패 턴만을 반복하면 학습자들의 영어말하기 숙련도는 이 단 계이상으로 향상될 수 없다. 영어회화 학습자들이 원어민의 눈치만 보면서 발음, 구문, 어휘에 전전공공하고, 회화강사와 짧게 한, 두 문장 주고받기만 하면 영어말하 기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신의 생각을 설득적으로 전달하 고 의견을 나누는 수준의 영어말하기로 발전할 수 없다. 위의 단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말하기 교수가 절실한 가운데 신동일은 스토리텔링 중심의 영어말하기 학습을 제안했다[4]. 그러나 신동일은 구체적인 이야기 구성요 소 12가지만 제시하였을 뿐 이를 바탕으로 한 영어 말하 기 교수전략 혹은 수업모형으로는 발전시키지 않았다.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중심의 말하기 교수법이 있을 것 으로 본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말하는 영어말하기 교수 전략은 신동일이 제안한 이야기 구성요소 12가지를 주 체에 따라 선택적으로 포함하여 말하는 교수전략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단계화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교수법을 제시하고 이를 수사학적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스토리텔링 중심의 영어말하기 교수의 실현 가능성

을 살펴볼 것이다. 초급 상 혹은 중급 하 수준의 영어말 하기 학습자로서 모국어 수준의 말하기 교수법 중의 하 나인 스토리텔링 중심의 영어말하기 학습이 가능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질문에 학습자 전략측면에서 긍정적 실 현가능성의 여부를 살펴보겠다.

## 2. 스토리텔링 중심의 영어말하기

### 2.1 이야기 구성요소

스토리텔링 기법의 말하기는 언어적 형태나 음성적 측면의 강조보다는 말하기 내용중심, 이야기 내용구성 요소에 중점을 두어 연습하는 것이다. 즉, 이야기 구성요 소 중심으로 말하기 내용을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연습을 강화하는 교수방법이다. 신동일은 스토리텔링 중심의 말 하기 연습을 위해 이야기의 중심적 구성요소 12가지를 분류하여 스토리텔링 기법의 말하기 전략으로 제시하였 다[4]. 이야기 구성요소 전략은 다음과 같다.

#### (1) 구조완성

이야기는 반드시 스토리 구조로 완성해야하며 순환적 인 스토리는 도입부, 확장부, 종결부로 구성되어 도입부 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고, 확장부에서는 제안된 스토리의 주제나 사건을 부분 적으로 변형, 확장, 도입부 정보 반복, 구체적 사건이나 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종결부에서는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의미를 재조명하며 스토리 전체를 마무리해야한다.

#### (2) 사건진행(이야기 구조완성과 반복됨)

혼자서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선적으로 사건의 도입-갈등-해결 순서로 이야기를 구성해야하며, 사건의 도입에서는 등장인물의 감정, 목적, 열정, 의도 등의 일련의 연속된 줄거리를 이끄는 생각을 제공해야 한다. 사 건해결을 위한 시도로 상황을 해결하거나 목적을 이루고 자 하는 행위가 제공되어야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목 적을 이루기 위한 등장인물의 행위가 성공 또는 실패한 다는 등의 직접적 결과의 상황을 제시해야한다.

#### (3) 배경설명(구조완성의 도입부와 유사)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경설명을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와 함께 일어난 일인지에 대한 기본정보를 먼저 말

하며 상대방이 알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을 먼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 (4) 등장인물소개

등장인물이 누구이며, 어떤 감정, 성격을 가지고 있고, 외모, 나이, 성별, 직업은 어떤지 등에 관한 인물묘사를 하여 듣는 사람의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

#### (5) 말하기 목표와 의도 명시적 공개

목표지향적인 선명한 이야기를 구성할 줄 알아야하며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밝히는가? 등장인물이 원하고 구하는 것을 말하는가? 등에 관한 목표지향점을 반드시 발화 속에서 밝혀야한다.

#### (6) 갈등노출(원인과 결과 진술과 유사함)

이야기 흐름 속에서 의식적으로 갈등과 위협의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등장인물을 불편하게하고 힘들게 하는 방해물, 방해 인물, 내적 갈등을 포함시킬수록 청자는 더욱 더 흥미를 가지고 듣는다.

#### (7) 사건순서대로 말하기

사건을 시간순서대로 말하여 사건의 응집성을 높여야 한다. 중간과정을 빼먹지 않고 여러 종류의 연결어를 적당히 사용하여 한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야 한다.

#### (8) 원인과 결과 진술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길게 불평과 해결, 문제와 대안, 원인과 결과에 대해 설명해야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차례대로 말해야한다.

#### (9) 감정표현

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는 감성적 스토리텔링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며 인물의 묘사와 함께 감정이입에 집중하도록 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또는 이야기 속의 3인칭 등장인물이 가지는 생각과 감정을 의도적으로 자꾸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

#### (10) 활동묘사

사건 등장인물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야한다. 이야기 식 줄거리 중심으로 전개보다는 활동 동사의 나

열로 인하여 시각적 효과를 자극하여 청자의 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 활동 동사는 현재 일어난 사건이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주기 때문에 결과적인 직접정보보다는 활동 동사의 나열로 이야기를 빠르게 전개시킬 필요가 있다.

#### (11) 등장인물의 행동에 반응보이기

등장인물의 행동, 반응의 결속력을 부가시켜 하나의 행동에 대한 등장인물의 반응을 듣는 사람이 추론할 필요 없게 해야 한다. 반드시 동작나열하고 하나의 동작에 반응을 반드시 포함시키면서 사건의 해결점으로 연결해야한다.

#### (12) 감동적 마무리

중급수준과 상급수준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단계이며,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다 더 견고한 완결성을 주기위해서 전달하는 이야기의 가치와 교훈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공유할 줄 알아야한다.

사건진행, 배경설명, 감동적 마무리 구성요소는 구조 완성의 요소에 종속적이면서 반복되는 면이 있고, 갈등노출 요소는 원인과 결과 진술 구성요소와 유사하다. 따라서 위의 12가지 이야기 구성요소는 모든 주제에 12가지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제에 따라 선택적으로 포함시켜 풍부한 담화량 확보와 이야기가 보다 더 설득적이며 생생할 수 있도록 한다.

## 2.2 수업모형

구체적으로 이야기 구성요소 중심으로 발전시킨 스토리텔링기법 말하기 교수전략이 기존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에서 제시하려한다.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영어말하기는 독백형 일 방향(One-Way) 말하기 중심이다. 발화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자신만의 개인적, 주관적 스토리 속에 위의 이야기 구성요소를 포함시켜 긴 호흡으로 혼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기존의 대화식 말하기는 한, 두 문장 단위의 발화중심으로 원하는 답이나 내용이 부족하면 추가적인 질문을 반복하고, 회화교재에 포함된 언어적 특징을 중심으로 강의하는 특색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서의 영어발화의 경우들은 영어발표나 개인면접 등의 경우가 더욱 빈번히 일어나서, 대학의 교양영어수업 수강생들의 선호하는 수업이 영어말하기 강좌이며 교수

법으로 개인발표 교수법이 가장 효율성 있는 말하기 훈련이라고 설문에 응답하기도 했다[5].

발화자 자신이 영어로 일상생활관련 주제에 관하여 혼자 긴 호흡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이야기 구성요소를 활용한 학습 자료나 교수법 연구가 절실하다[6].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영어말하기 교수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Table 1. Teaching Strategies

| Step         | Teaching Strategies   |
|--------------|---|
| Warm-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ke questions and ask about students' daily life related with the topic</li> <li>• Share the experiences with students</li> </ul>   |
| Present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roduce the necessary contents for the topic</li> <li>• Explain useful expressions, vocabularies and sentence structures</li> <li>• Present 2 or 3 sample responses</li> <li>• Pair work</li> <li>• Feedback from a teacher and peers</li> </ul> |
| Practi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rite down students' own stories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story</li> <li>• Pair work</li> <li>• Communicate with students</li> </ul>   |
| Us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dividually speak aloud about the topic as a whole story for themselves</li> <li>• Write down their own stories without referring to handouts as a whole script</li> <li>• Pair work</li> <li>• Feedback from a teacher and peers</li> </ul>      |
| Follow-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dividual presentation</li> <li>• Audio recording</li> <li>• Feedback from a teacher</li> </ul>   |

(1) 준비(Warm-Up)단계

교사는 학생들 자신의 일상생활관련 주제를 선택하여 질문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이해시키며, 교사 자신의 경험을 영어로 말해주면서 학생들이 질문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준비시킨다. 학생들 일상생활관련 주제 중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Have you ever been in situation in which you wanted to take a class but faced some difficulties? Tell me what happened How did you solve the problem?”가 있겠다.

(2) 제시(Presentation)단계

주제관련 이야기 구성요소들, 문장구조, 어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두, 세 개의 모범스토리를 제시한다. 말하기 주제가 수강신청 시에 겪었던 어려움과 해결점을 묻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주제관련 필요한 이

야기 구성요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질문을 적어본다. 12개의 이야기 구성요소 중 최소 필요한 구성요소는 1. 배경설명에 필요한 구조완성, 2. 수강신청전의 일과 수강신청 후의 일에 해당된 사건순서대로 말하기, 3. 특징과 목을 신청한 이유와 결과에 해당된 원인과 결과 진술, 4. 수강 신청한 행동을 표현하는 활동묘사와 5. 수강 신청시에 겪었던 감정표현을 하는 감정표현 구성요소들이 제시된다. 예를 들면 “1. Give some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yourself like what school you go to, what major you study, and what courses you are interested in? 2. Tell the course you have taken and you wanted to take in the college. 3. Describe what problems you faced in signing up this semester including the reasons and the specific situation you couldn't handle with and how you felt about the situation. 4. Describe how to solve the problem. 5. Describe the results of the happening. 6. Evaluate about the episode personally including expressing your feelings.” 전략설명과 어휘 및 문장구조 설명은 전체강의로 교사가 1차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연습은 수업자료에 제시된 공간에 학생자신의 문장을 완성하고, 짝 활동으로 혼자 말하기 연습을 하며 피드백은 교사와 동료로부터 받는다. 마지막 제시단계로 주제관련 모범답변을 오디오로 들려주어 적절한 표현, 구조, 내용을 원어민의 억양, 강세, 발음으로 익힐 수 있게 한다. 수업자료에 제시된 샘플의 내용, 어휘, 문장구조에 관한 설명을 교사가 하고 수시로 학생들의 예를 물어보아 학생자신의 예로 완성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3) 연습(Practice)단계

연습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목표 주제에 맞는 발화를 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들어가는 학습활동으로 구성된다. 어휘, 문장구조, 이야기 구성요소에 대한 교사의 설명 뒤에 짝 활동이나 교사와의 의사소통활동을 통하여 연습활동을 한다. 학습자들은 주제에 맞는 이야기 구성요소에 따라 수업자료에 내용을 완성하고 짝과 함께 질문과 대답을 번갈아 연습한다. 예를 들어 “1.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yourself(ex. what year, major, interesting courses?

2. The courses you have taken and you intended to

take: \_\_\_\_\_  
 3. The reasons why you wanted to take the courses and problems you faced: \_\_\_\_\_”

**(4) 활용(Use)단계**

활용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학습을 통하여 익힌 주제 관련 발화를 자신의 경우로 전환하여 주제에 맞는 개인 맞춤형의 발화를 연습하고, 동료피드백을 교환하여 학습자의 발화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한다. 영어말하기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풍부한 이야기를 구성하여 가능한 많은 반복 연습,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향상시킬 수 있다[4]. 학습자들은 준비, 제시, 연습단계에서 익힌 학습활동을 수업자료를 보지 않고 주제질문만 제시된 공간을 자신의 이야기로 먼저 길게 작문으로 완성하고 짝 활동으로 긴 호흡의 말하기를 할 수 있는 활용시간을 갖는다.

**(5) 확인(Follow-Up)단계**

확인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발화능력을 확인하는 단계로 개인 발표를 하거나 자신의 담화를 오디오로 녹음하는 과제활동을 통하여 숙달된 발화능력을 확인 및 평가한다. 학습자는 활용단계에서 받은 동료와 교사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된 어휘, 문장구조, 발음, 내용구성을 토대로 개인적으로 연습한 말하기를 원고 없이 학생들 앞에서 긴 호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한다. 발표 중 교사는 어휘선택, 주제관련 이야기 구성요소 적절성 및 포함여부, 문장구조에 대한 수정사항을 발표자의 원고에 표시하여 중간, 기말고사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준다.

위와 같은 스토리텔링 중심의 말하기 교수가 본래의 말하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대답을 수사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3. 수사학적 5대 영역**

모국어의 말하기 교육은 학습자의 인지능력에 적합한 주제에 관하여 말하기 기술 및 내용조직에 중점을 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따르면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수사학의 5대 영역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7]. 수사학의 목적인 설득적인 말하기를 위

해서 고려해야 할 5대 영역은 착상(Invention), 배열(Arrangement), 표현(Expression), 암기(Memorization)와 발표(Action)의 단계들이다. 수사학적으로 설득적인 말하기를 위해 검토해야할 위와 같은 영역은 모국어 말하기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지만 본래의 말하기의 목적은 언어의 종류에 상관없이 설득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 말하기, 즉 영어로 말하기를 할 때 위의 수사학적 5대 영역들이 스토리텔링 중심의 말하기 교수에 적용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겠다.

**3.1 착상(Invention)**

수사학에서의 착상은 논리적인 증거를 찾는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창출하는 과정이다[7]. 영어말하기에서의 착상과정은 말하기 주제와 관련 있는 이야기 구성요소를 찾는 학습과정에 해당될 수 있다. 스토리텔링 중심의 영어말하기에서 내용이 논리적으로 구성되고 담화의 양이 풍부하면 청중은 화자의 담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 중급 하 수준의 영어말하기 수준을 가진 학습자들이 이러한 풍부한 담화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주제관련 이야기 구성요소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다. 아울러, 수업 준비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이 목표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사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쉽게 주제에 동화될 수 있게 하는 수사학의 에토스적 요소를 적용하고 있다.

**3.2 배열(Arrangement)**

배열은 착상된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으로 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다. 수사학적 의미에서 서론부분에는 청중의 호감을 사기위해 배경정보를 전달하고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풍부하게 구성하여 논리적으로 배열하여 청중의 공감을 얻고 결론에서는 발화자의 감정과 의견표현 때로는 요약을 하여 설득적인 말하기로 마무리한다[7]. 스토리텔링중심의 말하기에서도 이야기 구성 요소 중 구조완성, 배경설명, 원인과 결과 진술, 사건의 진행 요소가 이야기의 배열에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제가 대학에서의 수강신청 경험에 대한 것일 때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학습자 자신의 대학, 전공학과와 학년, 기존 수강한

과목들에 대한 질문으로 배경설명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강신청하러 했던 과목이 무엇이며 신청한 이유와 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여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진술을 준비하게 한다. 또한, 수강신청 실패의 결과로 학습자의 감정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학습자는 마무리의 결론부분을 배열할 수 있다.

### 3.3 표현(Expression)

표현은 수사학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꾸미는 것이다. 글쓰기에서는 문체론으로 설명될 수 있고 모국어 말하기에서는 다양한 수사법을 이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꾸미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외국어 말하기에서의 표현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득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적합한 어휘, 문장구조, 발음에 관련된 학습과정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7]. 교사가 학습 자료에 제시한 주제관련 어휘와 문장구조에 관한 설명, 짝 활동 중에 교사와 동료가 제공하는 어휘, 발음, 문장구조에 관한 피드백이 모두 표현의 단계와 결부되는 학습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다.

### 3.4 암기(Memorization)

모국어 말하기에서 가장 단순한 수사학적 영역이 암기관련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7], 그러나 외국어말하기에서의 암기는 외국어 학습효과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며 모국어의 말하기처럼 단순한 학습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 암기영역은 학습자가 주제관련 이야기 구성요소를 이해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조직하고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이를 표현하는 요소인 어휘와 문장구조, 발음의 표현까지 숙달해야 하는 과정이다. 많은 양의 시간과 노력이 동반되는 연습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암기를 위하여 새 어휘를 여러 번 말하거나 적고, 발음연습, 영어메모나 중요문장적기, 주요 이야기 구성요소와 세부사항간의 연결노력, 말할 내용에 대한 요약하는 인지전략사용의 양태를 많이 보인다[8]. 따라서 스토리텔링 중심의 영어말하기 과정에서도 수사학적 측면의 암기영역이 적용되고 있으며, 오히려 모국어 말하기에서의 암기영역보다 그 학습가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다.

### 3.5 발표(Action)

수사학적 측면의 발표는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

를 전달하기 위해 화자의 목소리, 자세, 몸짓, 어휘선택 등에 관여하는 것이다. 스토리텔링 중심의 영어말하기에 서의 발표는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의 방향으로 하는 긴 호흡의 이야기 식 말하기 발표다. 따라서 낮은 영어말하기 숙련도 소지의 외국어 학습자로서는 영어말하기 발표가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발표는 가장 부담이 되는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다[8]. 외국어로서의 말하기 발표는 모국어에서의 말하기 발표와는 다른 과정을 거친다. 목소리 보다는 발음, 자세나 몸짓보다는 메시지 전달, 적절한 어휘선택이 발표의 결과를 결정지으며 이를 향상시키려는 개인적인 노력이 따로 요구되는 과정이다. 발표는 암기를 전제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발표 도중 심리적 요인이나 연습부족으로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의사소통전략을 이용하여 기억회복을 시도하지만 개인발표에서는 전달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전략을 사용하는 양상이 모국어인 경우와 비교할 때 높지 않다.

위와 같이 스토리텔링 중심의 말하기 교수도 수사학적 측면에서의 5가지 단계를 적용하여 언어의 종류에 상관없이 효과적이고 설득적인 말하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겠다.

## 4. 학습자 전략(Learner Strategies)

스토리텔링 중심의 영어말하기는 초급 상 혹은 중급 하 수준의 외국어 숙련도를 가진 학습자에게 교수가능성이 있는지 학습자 변인 중 학습자 전략을 통하여 그 가능성이 여부를 살펴보고자.

Chou는 학습자 전략을 학습전략과 언어사용전략으로 나누어 학습자 전략의 양상을 살펴보았다[9]. 학습전략으로 초인지전략(Metacognitive Strategy) 과 인지전략(Cognitive Strategy)이 있고, 언어사용전략으로는 회고전략(Retrieval Strategy), 연습전략(Rehearsal Strategy), 위장전략(Cover Strategy), 의사소통 전략(Communication Strategy)으로 분류하였다.

초인지 전략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인지 기능을 이용하여 학습 전, 후 과정에서 사전 학습계획, 조직, 평가활동을 하는 학습조절 전략이다. 주로 모국어 학습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인지전략은 학습자들이

학습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분석, 분류화, 기억,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학습전략이다. 언어사용전략중 하나로 분류되는 회고 전략은 학습자들이 자신이 저장한 학습정보를 불러오거나, 잊혀진 정보를 회상, 암기하기 위한 학습전략이다. 학습자들이 목표언어를 연습하기 위한 연습전략과 학습자들이 언어사용 중 자신이 준비가 안 되어있거나 어리석게 보이지 않도록 언어능력이 있음을 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장전략도 언어사용 전략에 속하며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전략은 학습자들이 의미 있고 정보가 풍부한 메시지를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화제회피, 내용 줄임, 화제전환, 다른 말로 풀어 말하기, 일부 내용 생략 등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전략이다.

Chou는 대만의 프랑스어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영어수업에서 개인발표 학습활동을 할 때 학생들이 사용한 학습전략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개인발표 집단과 협력발표집단과의 비교에서 실험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초인지 전략 사용 양상이 개인발표집단에서 나타났다. 이는 개인발표가 외국어학습자들에게 초인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연습전략사용 양상에서도 개인발표집단이 협력발표 집단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연습을 통하여 영어를 배울 수 있고 청중들 앞에서 연습해보는 점이 영어를 더 유창하게 말 할 수 있다는 학습적 믿음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인지 전략은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인지전략은 발표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학습활동에 보편적으로 학습자 개인들이 사용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발표집단에서는 초인지 전략과 연습전략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학습자들의 말하기 실력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9].

스토리텔링 중심의 영어 말하기 교수는 개인발표형식의 말하기 형태이고, 모국어 수준에 버금가는 외국어 숙련도를 갖추지 못한 학습자도 초인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이야기 구성요소를 조직하고, 사전 학습계획을 하거나 평가활동을 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낮은 수준의 외국어 학습자도 모국어 말하기 교수법과 유사한 스토리텔링 중심의 영어말하기 교수법을 통하여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말하기 숙련도를 갖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영어 말하기 교수법을 제안하기 위해 이야기 구성요소 중심의 말하기 전략 12가지를 소개하였고, 이를 적용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영어 말하기 교수법의 이론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 5대 영역 과정을 검토하였으며, 이 교수법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 학습자 전략 사용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초급 상 혹은 중급 하 수준의 영어 말하기 숙련도를 갖춘 학습자들도 말하기의 본 목적인 담화를 보다 더 설득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영어 말하기 교수법의 효과를 기존의 대화식 영어 회화 교수법에 과학적 통계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 함으로써 본 제안의 객관성을 도출한다.

## References

- [1] Z. Dornyei. "On the teachability of communication strategies", *TESOL Quarterly*, Vol. 29, pp. 55-84, 1995. DOI: <http://dx.doi.org/10.2307/3587805>
- [2] M. S. Ko. "Improving English speaking proficiency with OPIc",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Instruction*, Vol. 14, No. 1, pp. 21-45, 2010.
- [3] R. Nolasco, & L. Arthur. *Convers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4] D. I. Shin. *English speaking strategies English major students do not know*, Seoul, Credu, 2008.
- [5] D. S. Jung, & H. D. Kim. "Study for development of college English curriculum", *English Teaching*, Vol. 56, No. 4, pp. 167-195, 2001.
- [6] M. S. Ko. "A class model to teach one-way English speaking", *Journal of English Education*, Vol. 44, pp. 9-32, 2012.
- [7] M. S. Ko. "A rhetoric approach to teaching of English speaking", *Journal of English Education*, Vol. 46, pp. 9-35, 2014.
- [8] M. S. Ko. "The influence of storytelling-focused speaking instruction on one-way English speaking", *Journal of English Education*, Vol. 43, pp. 9-41, 2012.
- [9] M. Chou. "The influence of learner strategies on oral presentations: a comparison between group and

individual performance”, *English for Specific Purpose*,  
Vol. 30, pp. 272-285, 2011.

DOI: <http://dx.doi.org/10.1016/j.esp.2011.04.003>

---

고 미 숙(Mi-Sook Ko)

[정회원]



- 1989년 2월 :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학사)
- 2001년 5월 : Oklahoma City University (U.S) TESOL(MA)
- 2006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영어교육박사)
- 2006년 9월 ~ 2008년 3월 : 서울시립대학교 교양영어 강의전담
- 2008년 4월 ~ 현재 : 서일대학교 비즈니스영어과 교수

<관심분야>

영어교육, 영어말하기